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18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4. 전능왕 오셔서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한가위 명절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한로(寒露)가 되었습니다. 찬 이슬을 재촉하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처연합니다. 조금씩 변해 가는 산색을 바라보며 가을이 깊어감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안고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 평안함과 고통이 갈마드는 세상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서 든든합니다.

주님, 하루를 살아도 영원처럼 살고 싶습니다. 허락하신 생명의 뜻을 한껏 누리되,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너무 큰 시련에 직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주님, 우리 삶의 지평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3:23-24 인도자

♠ 교 독 문 19. 시편84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장현애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479. 내가 깊은 곳에서 다함께

성경봉독 I. 창24:1-4 인도자

II. 마6:9-13 허정운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초대 최인환 전도사

II. 야베스, 아굴, 예수 김기석 목 사

성 찬 식 다함께

헌신의 찬송	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음 같이 욕심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대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에 따라 춤추며 살게 해주시고, 세상 어디에나 생기를 가져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성서에서 배우는 평화(4)/김기석 목사 기도 : 박홍재 권사

다음 주 에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윤석철 장로	인도자 장재영 집사

10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중수	박범희	이순정	최숙화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하현철	유영남	박혜경	박홍재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2

부정의 마귀와 욕의 욕망

우리의 두 번째 싸움은 부정의 마귀와 욕의 욕망, 즉 인간을 젊었을 때부터 괴롭히는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이 거센 싸움은 영혼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 안에서 행해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의 전선에서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육체적인 금식만으로는 완전한 자기 억제와 참된 순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한 기도, 빈번한 성경 묵상, 수고와 육체 노동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영혼의 끊임없는 충동들을 억제하여 부끄러운 환상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겸손은 무엇보다 도움이 되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부정함을 비롯한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비열한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5:19).

금식하는 것은 몸을 괴롭히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성을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식을 하면 먹은 음식 때문에 정신이 흐려져서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금식에만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되며, 우리의 생각과 영적 묵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참으로 순결하고 순수한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걸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3:26).

만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정말 범대로 경기하여 부정의 불순한 영을 극복하고 면류관을 얻으려 한다면(딤후2:5), 우리의 힘과 수덕적인 수행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치유되고 깨끗함의 고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 같은 승리는 인간의 본성적인 능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욕의 쾌락과 도발을 짓밟아 억제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

혜가 이 세상의 늪에서 끌어 올려주지 않는 한,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날개를 쳐서 거룩함에 이를 수 없고 천사들을 본받을 수도 없습니다.

육의 속박을 받는 인간을 영적인 천사처럼 만들어주는 덕은 자기 억제(극기)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빌3:20 참조). 잠자는 동안에 더러운 환상이 만들어내는 영상들을 우리 영혼이 무시하는 것은 이 덕을 완전하게 획득했다는 표식입니다.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어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은 영혼이 병들었으며 정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더러운 환상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연약함과 게으름의 증거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휴식하는 동안에 배설되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질병을 드러내 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의원께서는 영혼의 감추어진 부분에 치료책을 두시는데, 이는 질병의 원인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5:2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호기심 많고 순결하지 못한 눈을 고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에 사용하라고 주신 눈을 나쁘게 사용하는 영혼을 고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부지런히 네 눈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4:23)고 말하면서, 원하는 목적에 눈을 사용하는 것에 부지런함이라는 치료법을 듭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마귀가 부추기는 여인들에 대한 생각을 정신으로부터 즉시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미혹자가 정신에 위험하고 비열한 생각을 몰아넣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뱀의 머리를 조심하여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창3:15 참조). 다시 말해서, 뱀이 영혼 안에 몰래 기어 들어오기 위해 사용하는 위험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에 경계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 즉 생각의 도발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뱀의 몸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 생각이 속삭이는 육적인 쾌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정신을 저하시켜 부정행동을 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계속)

(360년 경에 로마의 스키타이에서 태어나 435년에 사망한 존 카시안 성인의 글을 옮겨왔습니다.)

■ 마/음/으/조/워/는/글

나를 텅 빈 땅으로 보내주소서

나를 당신의 광활함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나를 바위에 귀기울이는 자로 만드소서.
당신의 바다의 고독 위로
나의 눈을 펼치게 하소서.
나로 하여 강물의 흐름을 따라
양쪽 강기슭에서 외치는 소리로부터
밤의 음향에까지 깊숙이 이르게 하소서.

나를 당신의 텅 빈 땅으로 보내주소서.
언제나 바람이 가득히 불고,
웅장한 수도원들이 마치 옷자락처럼
아직 때묻지 않은 삶 주위로 서 있는 그곳으로.
나 그곳으로 가는 순례자들과 함께 하렵니다.
그 어떤 미혹(迷惑)에도
그들의 목소리와 모습을 놓치지 않고,
어느 눈먼 노인의 뒤를 따라
아무도 모르는 그 길을 가렵니다.

— 라이너 마리아 릴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김창원 정지은 정현주
 안종일 이한림 김명희 이선림 김근종 정옥영 장성호 박홍엽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박경원 이은옥 윤미경 서원금 김희진 박홍재 안정숙
 방민 김애경 박성수 정복순 최인환 김재흥 최희영 임고운 김순복
 김준우 우순덕 김순복 전영웅 노용래 무명1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윤성종 김윤정 조항범 오현정 유증희 이재문 황경순
 최윤희 정두리 김정섭 문인옥 김미순 김영한 이희균 이경남 조순덕
 최철수 광권희 권미정 이증자 김창경 박병희 박미영 노미향

감사헌금:

박홍재 오진훈 노순옥 박상규 안정숙 김재경 박은정 김종구 박홍엽
 김성자 박영균 박재실 김근종 정옥영 김극 김희우 권미숙 이인섭
 김은정 박창운 허정윤 김혜권 박석희 신윤정 황경순 한지혜 조항범
 오현정 무명2

생일감사헌금: 문영혜

100주년 기념 사업 헌금: 방문성 박혜경 장영숙 이선림
 (누계- 7,32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섬	홍순덕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이재문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문영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광권희		김춘려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김금순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최종원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임수연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최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제1여선교회 월례회는 15일로 연기합니다.
2. **오후 집회** :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3. **여선교회 가을 모임**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가을 모임이 성경 퀴즈 대회를 겸해 17일(화)에 평화를 만드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4. **집회 참석** : 수요일에는 <성서로부터 배우는 평화> 강의가, 목요일에는 웨슬리 목사의 <표준설교>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장을 위한 귀한 기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5. **신앙실천** : 책읽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신앙생활의 긴장감을 잃지 않기 위해 좋은 책을 선정해 읽으십시오. 책을 선정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 헨리 나우웬 신부의 <<안식의 여정>>을 추천합니다.

* 헌화 : 한완식 장로 임정자 권사 (결혼 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